

이상돈의 '바른 소리'



호남 신당은 가능하고 성공할 것인가?

요즘 야권 상황이 심상치 않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 일어난 반(反)친노 정세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것 같기 때문이다.

신위원회가 이제 와서 당내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공천개혁을 포기하다간 개혁과 화합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어버릴 것이 분명하다.

최고위원회와 사무총장을 앉히고 어찌고 하는 기구 개편은 쟁점 사안이 못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그러하니 혁신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는 9월에는 호남의 원들이 탈당할 것이라는 말이 들려온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이 호남 현역 의원에게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종교칼럼



김영철 광주 남동·18기년성당 주임신부

잠보! 라피키! 하쿠나 마타타!

<안녕하세요> <친구> <아무 문제 없어요>

걱정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아내와 헤어져 뒤로 홀로 씩씩하게 키웠습니다.

얼마 전 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신부, 나야. 며칠 전에 일하다 허리...

"그럼, 몰랐네. 연락이라도 하지. 허리는 왜 다쳤는데?" "일하다 삔끗했어." "그런데 입원 중에 검사했는데 암수치가 높아서 정밀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네."

그렇게 일주일 후 그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다짜고짜 하는 말이 '김신부, 기도 많이 안했지?' 뜨끔했습니다. '왜?'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암이래." 나는 애써 태연한 척 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치료해야겠네." "근대, 자주 눈물이 나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씩씩하고 당당하던 친구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등 재충전의 기회가 주어짐) 중에 동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를 여행했습니다.

"그래, 맘 굳게 먹고 조만간 시간 내서 밥 한번 먹자."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죽음을 그림자가 가까이 있다고 느끼는 친구의 심정은 어떠한가.

기 고

나의 인생, 나의 문학



양홍수필가

평생 한 길을 가면 놓치는 것들이 많다. 이제부터라도 건물을 지어 보거나, 사업체도 운영해 보고 싶다.

산다는 건 방향이다. 길이 많기 때문이다. 가야할 길도 많고, 가고 싶은 길도 많은 것이 삶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아직도 내 안에는 어린 아이가 살고 있는 것 같다. 남들이 보면 어처구니없고 바보 같겠지만, 어릴 때부터 품고 있던 이런 수많은 꿈의 조각들이 아직도 내 안에서 떠다님을 느낀다.

치열한 프로 정신을 가졌던 그는 "신문 기자 소망은 작가가 되는 것"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세면구는 수습은 여행 문학의 산실인 '현 때문에'이다. 얼마 전 지인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되었고, 시 부문 추천을 받아 글을 쓰는 손재이기 때문'이라는 교훈도 주신 분이다.

도 지역정당으로서 현재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치개혁에의 여망을 담아내는 어렵다는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대통령과 경쟁제민주화, 그리고 정치쇄신을 내걸고 총선과 대선을 치른 것도 안철수 현상이 의미하는 바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본래 나는 문학도를 꿈꾸던 사람이다. 정직한 삶을 살면서, 거기에 시나 소설, 수필로 옷을 입혀보고 싶었다.

하지만 잠에서 깨듯 공상에서 벗어나면, 현실은 여전히 고허(古樞)로 정년퇴임을 하고 산수(參壽)를 향해 가는 여정 중이다.

종근 기자로 스페인 내전을 취재할 정도로

社 說

'박 대통령의 호남 겨안기' 반갑다

광주 시민 200명을 포함, 2015광주 세계유니버시아드(광주 U대회) 성공개최의 주역 450명이 어제 청와대 오찬행사에 초청됐다.

외대 조직위 120명(자원봉사자 및 관계자)과 광주시 소속 80명(서포터즈 등)은 위촉수위에 달해 있다.

광주를 마르스 청정지역으로 유지해 U대회 성공 개최에 기여한 범민 관계자와 대회기간 교통 통제 등 불편을 참아 준 화정동 선수촌 인근 주민대표 등도 초청 대상에 포함됐다.

광주와 마르스 청정지역으로 유지해 U대회 성공 개최에 기여한 범민 관계자와 대회기간 교통 통제 등 불편을 참아 준 화정동 선수촌 인근 주민대표 등도 초청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청와대의 광주 시민 초청은 메르스 사태와 북한 북침 그리고 태풍 등

의 악재(惡材) 속에서도 나눔과 배려의 '광주 정신'으로 이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높여 낸 것에 대한 감사의 성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것은 박 대통령이 '친호남 감사 파티'를 통해 호남 차별 해소 의지를 밝힌 것 아니냐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호남으로서도 매우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다. 바람 불 때 눈을 저으라는 속담처럼 우리 지역민들은 대통령의 변화에 맞춰 무엇이 지역 발전을 위한 길인지 잘 헤아려야 할 것이다.

잠자는 수학교실 '수포자' 대책 없나

<수학 포기 학생>

며칠 전 어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환담 중 '수포자'(수학 포기 학생)가 증가하고 있어 걱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10명 가운데 6명이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이라는 뜻의 '수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이 어렵다고 대답한 학생의 비율도 초등학교 27.2%, 중학생 50.5%, 고교생 73.5%로 나타났다.

를 읽고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다. 자신이 수포자라고 응답한 초·중학생은 각각 36.5%, 46.2%였다.

그럼에도 이른바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학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無 等 鼓

요즘 방송가는 요리 프로그램이 대세다. 인기 셰프들은 연예인 못지않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인터넷 블로그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진 중 하나가 음식 사진이다. 누리꾼들의 입소문을 타고 뜨는 맛집은 많은 사람들의 순례 코스가 된다.

식당을 고르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 물론 음식 맛은 기본이다. 인테리어와 분위기를 중시하는 사람, 종업원이나 주인장에 무게 중심을 두는 사람 등 다양하다.

이런 식당이라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 몇 년 전 우연히 읽은 만화책에서 발견한 식당이다.

심야식당

만화에 빠진 이들은 자연스레 알뜰 드라마 '심야식당'까지 찾게 된다. 시즌 3까지 제작된 드라마 '심야식당'은 모두 30편으로 구성돼 있다.

지금은 '극장판 심야식당'도 상영 중이다. 드라마 출연진들이 그대로 뭉쳐 만든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음식은 나폴리탄, 카레, 케리말이, 마파 등이다.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Kwangju Daily) and The Kwangju Ilbo. It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distribution details.